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나스닥, 부채한도 협상 기대 속 전일에 이어 AI 산업 중심 강세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전일에 이어 AI 산업 중심으로 쏠림 현상 지속

•미 증시는 견조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유입되며 상승 출발. 더 나아가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가 부각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 특히 국방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정부 지출을 동결하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을 확대. 다만, 전일 엔비디아(+2.54%)에 이어 이번에는 마블 테크(+32.42%)가 'AI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발표하며 급등하자 반도체 및 AI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을 뿐 에너지와 제약, 바이오, 필수 소비재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다우 +1.00%, 나스닥 +2.19%, S&P500 +1.30%, 러셀2000 +1.05%)

특징 종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6.26%) 급등 지속

•반도체 설계 기업인 마블 테크(+32.42%)가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로 급등. 특히 AI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확대. 엔비디아(+2.54%), AMD(+5.55%), 마이크론(+6.21%), AMAT(+4.29%)등 반도체 관련 종목군은 물론 MS(+2.14%), 알파벳(+0.92%), AI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에 아마존(+4.44%)도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에 이어 6.26%나 강세. 포드(+6.24%)는 테슬라(+4.72%)와 협력해 충전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으며 테슬라도 동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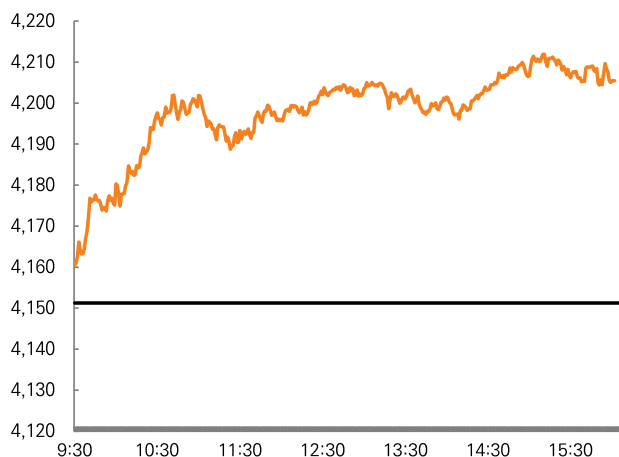
부채한도 협상 주말에 잠정 합의: 5월 31일(수) 하원 표결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전화 통화로 관련 협상을 이어감. 이후 백악관과 공화당은 미국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데 합의한다고 발표. 매카시 하원의장은 토요일 저녁 늦게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이를 확인. 합의문은 현지시각 일요일 발표 후 수요일 표결을 진행한다고 언급. 최근 시장을 보면 우호적인 내용이 나와도 시장은 업종에 주목해 왔던 점을 감안 업종 차별화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한국 증시 전망: 휴장

•MSCI 한국 지수 ETF 1.69%, MSCI 신흥 지수 ETF는 1.7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1.5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8% 상승. 한국 시장은 휴장이나 개장했다면 1% 가까이 상승 출발했을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58.81	+0.16	상해종합	3,212.50	+0.35
KOSDAQ	843.23	-0.53	홍콩항셍	18,746.92	-1.93
DOW	33,093.34	+1.00	베트남	1,063.76	-0.08
NASDAQ	12,975.69	+2.19	유로스톡스 50	4,337.50	+1.59
S&P 500	4,205.45	+1.30	영국	7,627.20	+0.74
캐나다	19,920.31	+0.74	독일	15,983.97	+1.20
일본	30,916.31	+0.37	프랑스	7,319.18	+1.2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부채한도 협상 잠정 합의 ②높아진 인플레이

백악관과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탈세 단속을 위한 자금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특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규모 지출 축소가 없다는 점이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 실제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가깝고 낙관적’이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표. 매카시 하원의장도 협상의 진전을 봤고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언급. 한편, 미 재무부는 X-date를 기존의 6월 1일에서 5일로 조정. 이에 따라 협상의 더 많은 시간을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한편,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전화 통화로 관련 협상을 이어감. 이후 백악관과 공화당은 미국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데 잠정 합의한다고 발표. 매카시 하원의장은 토요일 저녁 늦게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이를 확인. 합의문은 현지 시각 일요일 발표 후 수요일 표결을 진행한다고 언급.

최근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AI 관련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 이를 감안 합의 이후 단기적인 헬리 기대가 높지만 시장 보다는 업종별 차별화가 더욱 진행될 것으로 전망

미국 4월 개인 소비지출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증가는 물론 예상했던 0.4%보다 크게 개선된 0.8%로 발표돼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서비스 부문이 0.75%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내구재 주문이 1.62% 증가하며 이를 주도. 지난달 저축률이 4.5%였는데 이번에는 4.1%로 낮아져 저축을 줄여 소비에 나선 것으로 추정.

그러다 보니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나 예상했던 0.3%를 상회한 0.4% 상승. 전년 대비로도 4.2%에서 4.4%로 상승. 근원 PCE 가격지수도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보다 상승한 0.4%로 발표돼 전년 대비로는 4.6%에서 4.7%로 상승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CME는 FedWatch를 통해 6월 금리인상 확률을 1주일 전 17.4%에서 이제는 64.2%로 전망하고 있어 연준의 6월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임. 더불어 12월에도 현재의 5.00%~5.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수치가 지난 1주일 전 8.2%에서 현재는 61.6%로 전망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적극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

한편,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5월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는 59.2로 발표돼 시장이 예상했던 58.0은 물론 잠정치인 57.7에서 개선. 여기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발표된 4.6%는 물론 잠정치인 4.5%에서 4.2%로 크게 하향 조정.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0%에서 3.1%로 상승했으나 이 또한 잠정치인 3.2%에서 하향 조정. 이러한 수치 결과로 국채 금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6.26%) 급등 지속

반도체 설계 기업인 마블 테크(+32.42%)가 견고한 실적과 가이드스 발표로 급등. 특히 AI 가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폭이 확대. 더불어 키뱅크를 비롯한 일부 투자회사들이 투자의견 또는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강세. 엔비디아(+2.54%), AMD(+5.55%), 마이크로소프트(+6.21%) 등은 물론, AMAT(+4.29%), 램리서치(+4.34%) 등 반도체 관련 종목군은 물론 MS(+2.14%), 알파벳(+0.92%), AI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에 아마존(+4.44%)도 상승

여기에 주초에 애플(+1.41%)과 5G 관련된 개발을 위해 새로운 계약 체결한 브로드컴(+11.52%)은 급등. 특히 오픈하이머가 강력한 네트워킹 및 서버 스토리지 성장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스카이웍(+5.07%), 퀴보(+6.10%), 퀄컴(+6.08%) 등 애플 부품주도 동반 상승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에 이어 6.26%나 강세.

포드(+6.24%)는 테슬라(+4.72%)와 협력해 충전 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으며 테슬라도 동반 상승. 갭(+12.40%)은 마진이 크게 개선되자 상승. 반면, RH(-3.07%)는 가이드스가 예상을 하회하자 하락. 율타뷰티(-13.37%)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연간 영업마진 전망 하향 조정으로 급락. 의료기기업종인 매드트로닉(-2.49%)는 견고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가이드스 발표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 ETF (XOP)	-0.34	대형 가치주 ETF (IVE)	+1.33
클린테크 ETF (CTEC)	+0.14	중형 가치주 ETF (IWS)	+0.69
소매업 ETF (XLY)	+2.35	소형 가치주 ETF (IWN)	+0.97
온라인소매 ETF (EBIZ)	+2.13	대형 성장주 ETF (VUG)	+1.88
미국 인프라 ETF (PAVE)	+1.16	중형 성장주 ETF (IWP)	+1.10
핀테크 ETF (FINX)	+0.49	소형 성장주 ETF (IWO)	+1.1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92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76
클라우드 ETF (CLOU)	+3.01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34
사이버보안 ETF (BUG)	+1.5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10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46	미국 국채 ETF (IEF)	+0.19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55	하이일드 ETF (JNK)	+0.63
바이오섹터 ETF (IBB)	+0.20	신흥국 채권 ETF (EMBD)	-0.28
로봇&AI ETF (BOTZ)	+1.71	물가연동채 ETF (TIP)	+0.12
반도체 ETF (SMH)	+4.9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909.97	+2.68	+5.12	+9.81
경기소비재	1,190.01	+2.38	+0.36	+3.26
커뮤니케이션	210.92	+1.71	+1.21	+6.34
부동산	223.68	+1.17	-1.41	-5.52
산업재	830.39	+0.77	-1.43	-1.86
금융	532.82	+0.74	-1.54	-3.37
소재	479.21	+0.42	-3.14	-5.49
필수소비재	764.84	+0.35	-3.21	-5.25
유틸리티	326.14	-0.10	-2.40	-6.89
헬스케어	1,483.73	-0.17	-2.93	-4.61
에너지	602.51	-0.37	-1.11	-8.0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한국 시장 휴장

MSCI 한국 지수 ETF 1.69%, MSCI 신흥 지수 ETF는 1.7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1.5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78% 상승. 한국 시장은 휴장이나 개장했다면 1% 가까이 상승 출발했을 것으로 추정

미국 PCE 인플레이션 상승 확대

미국 4월 개인 소득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증가에서 0.4%로 발표돼 예상에 부합.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는 물론 예상했던 0.4%보다 크게 개선된 0.8%로 발표돼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나 예상했던 0.3%를 상회한 0.4% 상승해 전년 대비로도 4.2%에서 4.4%로 상승해 예상(yoy +4.3%)보다 높은 수준. 근원 PCE 가격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보다 상승한 0.4%로 발표돼 전년 대비로는 4.6%에서 4.7%로 상승

미국 5월 소비심리지수 확정치는 59.2로 발표돼 시장이 예상했던 58.0은 물론 잠정치인 57.7에서 개선. 물론 지난달 발표된 63.5보다는 둔화. 한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발표된 4.6%는 물론 잠정치인 4.5%에서 4.2%로 크게 하향 조정.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0%에서 3.1%로 상승했으나 이 또한 잠정치인 3.2%에서 하향 조정.

미국 4월 내구재 주문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3.3% 증가보다 둔화된 1.1%로 발표됐으나 예상했던 1.1% 감소보다는 개선.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0.3% 증가에서 0.2%감소로 전환돼 예상했던 0.1% 감소보다 부진. 대체로 내구재 주문 증가는 운송 부문의 주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CME FedWatch, 연준 6월 금리인상 확률 64%

국제유가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지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한편, 6월 4일 있을 OPEC+ 정례회담도 주목하고 있는데 사우디 석유장관의 경고와 러시아의 감산 가능성 없다는 발언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주말부터 본격적인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가솔린 수요 증가 기대도 긍정적인 영향.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는 수요 완화 우려 속 하락

달러화는 건조한 인플레이션과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가 충돌하며 여타 환율에 대해 혼조 양상을 보임. 엔화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폭이 컸음. 파운드화는 강세를 유료화는 소폭 약세를 보이는 등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양상.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등 신흥국과 상품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단기물은 건조한 근원 PCE 가격지수 영향에도 제한적인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장기물은 하락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 이는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지자 금리가 일부 되돌림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한편, CME FedWatch에서는 6월 금리인상 확률을 1주일 전 17.47%에서 현재는 64.2%로 상향 조정해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짐

금은 건조한 미국 인플레이션에도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지자 매물 출회되며 강보합으로 마감. 구리 및 비철금속은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 심리가 부각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대부분 상승. 곡물은 옥수수는 주요 작황지에 건조한 날씨가 예보되자 상승. 이는 파종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대두 또한 건조한 날씨가 작황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87%, 철근은 0.99%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2.67	+1.17	+1.37	Dollar Index	104.206	-0.04	+0.98
브렌트유	76.95	+0.90	+1.81	EUR/USD	1.0723	-0.02	-0.76
천연가스	2.42	-2.38	-6.50	USD/JPY	140.60	+0.39	+1.90
금	1,963.10	+0.04	-1.86	GBP/USD	1.2344	+0.19	-0.81
은	23.36	+1.96	-2.91	USD/CHF	0.9057	0.00	+0.67
알루미늄	2,237.50	+0.29	-2.01	AUD/USD	0.6517	+0.18	-2.01
전기동	8,135.00	+2.17	-1.41	USD/CAD	1.3615	-0.20	+0.81
아연	2,343.50	+3.15	-5.47	USD/RUB	79.3744	-0.83	-1.18
옥수수	604.00	+2.24	+8.93	USD/BRL	4.9947	-0.93	-0.07
밀	616.00	+1.94	+1.82	USD/CNH	7.0739	-0.25	+0.70
대두	1,337.25	+1.00	+2.29	USD/KRW	1,324.50	-0.11	-0.17
커피	181.60	-0.60	-5.42	USD/KRW NDF1M	1,321.50	-0.58	-0.1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798	-1.91	+12.57	스페인	3.605	+1.40	+12.80
한국	3.645	+5.00	+23.00	포르투갈	3.277	-0.40	+5.80
일본	0.421	-0.60	+2.30	그리스	3.921	+1.50	-9.80
독일	2.538	+1.60	+11.00	이탈리아	4.393	-0.50	+12.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